

사랑의 과일로 오해를 산

토마토

미국 민간요법에서는 토마토가 소화불량, 간 장애, 모든 신장질환에 좋다고 한다. 또 20세기 초의 한 의사는 변비 경향이 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천연 약제라고 소개했다. 또 18세기 유럽에서는 토마토를 최음제로 취급하기도 했다.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목록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토마토는 현대 과학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토마토는 위암이 적은 하와이 섬 주민, 폐암이 적은 노르웨이인, 전립선암이 적은 미국인, 모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미국 노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실제 대규모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토마토를 즐겨먹는 사람의 암 사망률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편 토마토에는 야채의 가장 주요한 항암물질로 꼽히는 베타 카로틴이 그다지 많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토마토에는 다른 종류의 카로틴-리코펜(lycopene)이 고농도로 들어 있다. 이것은 어쩌면 카로티노이드 일종 가운데서 베타 카로틴만이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토마토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대체 왜 프랑스에서는 토마토를 사랑의 사과라고 부른 것일까?

토마토를 먹고 정열을 불태운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었던가?

토마토가 성욕을 자극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피터 태버너는 '최음제:과학과 신화'에서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토마토 자체에도 원인이 있다. 토마토는 정열을 상징하는 선명한 붉은 색을 하고 있고, 한때는 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으므로 그것이 최음제라는 평판을 정착시키는 데에 일조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토마토의 그 힘은 실은 번역상의 혼란이 낳은 가공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토마토는 원래 라틴어로 '말라 오이토피카(mala oethopica)' 즉 '황무지의 사과(apple of the moors)'라고 불렸다. 그것이 이탈리아어의 '포미 데이 모리(pomi dei mori)'가 되었다. 그것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때 '사랑의 사과(pomme d'amour)'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이 영어로 '러브 애플(love apple)'로 비약하는 것은 지극히 간단했다. 오늘에 와서는 '러브애플'이라는 말은 스파게티 소스에 사용하는 다른 종류의 토마토를 가리키게 되었다.

한편 어떤 사람은 토마토는 독성을 가진 식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논리적인 설명도 빈약하다. 토마토는 음식물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죄도 뒤집어 쓰고 있다. **[4]**

